

[국제]

■ 한미 FTA 타결 이후 美國내 쟁점은?

한미FTA가 타결된 이후 협상 내용과 그 영향 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일부 협상결과에 대해 '독소조항'으로 국익에 큰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FTA 협상내용에 대한 일부 비판의 경우 근거없는 부풀리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미FTA 타결 이후 불거진 쟁점들을 살펴본다.

쇠고기 수출 시기·재협상·이면합의 등 논란

◇재협상 여부=우리 정부는 재협상에 대해 "절대 불가능한 일로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지만 미국 의회 쪽에서는 재협상, 추가협상 가능성을 흘리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최대 규모의 전국 노동조합인 미국노동총동맹-산업별회의(AFL-CIO)와 주요 자동차 업체를 배경으로 노동, 환경 조항을 강화하는 재협상 또는 추가 협상을 언급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양국 간에 가서명된 협정문을 수정하는 재협상이라기 보다는 노동조합 등에 대해 부속서를 덧붙이는 형태의 추가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하고 있다.

美, 노조·자동차업계 배경 "재협상" 압박

◇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해석이 엇갈리는 사안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문제다.

정부는 국회에 보고한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를 통해 개성공단과 관련,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 Outward Processing Zone)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에 OPZ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 협상을 이끌었던 미국의 카란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협정에서 개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수행할 논의"라며 우리 정부와는 다른 뉘앙스로 언급을 했다.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이런 반응에 대해 "해석 차이일 뿐이다. 어느 지역을 어떤 조건에서 언제 할 지의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른 지역도 포함될 수 있는데 왜 개성에 한정하는가"라고 밝혔다. 북한의 노동과 환경의 기준 충족도 만만치 않은 요건이다.

◇쇠고기 수입 시기=우리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합리적 절차와 기간'을 거쳐 개방하겠다고 구두 약속한 만큼 5월 국제수역 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을 확정하면 '땀 흘리지 않고' 8단계의 자체 위험평가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협상 타결 이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5월 관정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문을 활짝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손 스파이서 미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4일(미국 시각)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쇠고기에 대한 명백한 통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밝혔다.

◇이면 합의=정부는 "이면합의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면합의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분야는 쇠고기, 개성공단,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섬유 시장 개방과 연계해 LMO 수입검역절차를 완화해줬다는 등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도 있다.

한미 FTA를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은 협상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면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협상 원문은 다음달에나 공개할 수 있고 이면합의는 절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산 일본차 공습 우려=1980년대부터 미국과 자동차 전쟁을 치른 일본은 미국이 요구한 '수출자율규제' 등을 통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 현지 공장건설에 열을 올렸다. 도요타와 닛산, 혼다 등 일본 '빅3'는 물론, 국내에 아직 진출하지 않은 마쓰다, 스바루 등도 모두 북미지역에 생산설비를 갖고 있다. 이들 공장의 제품도 한미 FTA 발효시 8%의 수입관세를 물지 않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선 미국산 일본차 공습 우려도

하지만 정부는 일단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미국시장에서 지난해 팔린 일본 브랜드 차량 550여만대 중 북미산이 330만대, 나머지는 일본 본토 제작본인데 워낙 일본 차 수요가 많아 공급이 달리는 지경인데다 우리 국민이 차량 선택시 강조하는 편의장비 등이 미국형이어서 한국시장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도요타 등 일본업체들은 수년 내 북미지역에서 1백만 대 가량 생산능력을 확충할 예정이어서 얼마든지 한국 공습에 나설 여력이 있다.



美 억만장자 "2천만弗 우주여행 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워드 및 엑셀 프로그램을 개발한 미국의 억만장자 찰스 시모니(58·사진 가운데)가 7일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선 기지에서 러시아 로켓을 타고 13일간의 우주여행에 나섰다. 사상 5번째 우주 여행객이 된 시모니는 이번 여행에 2천만 달러(186억원)를 지불했다.

6자회담 조기 재개 가능성

韓, 한중일 방문 등 행보 빨라져
北 김계관과 베이징 회동할 듯

집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장과 만나 양자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코벨타아시아 송금지연 사태로 한동안 주춤했던 6자회담이 조만간 정상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북한 방문과 동북아 순방에 나서면서 북한 측의 태도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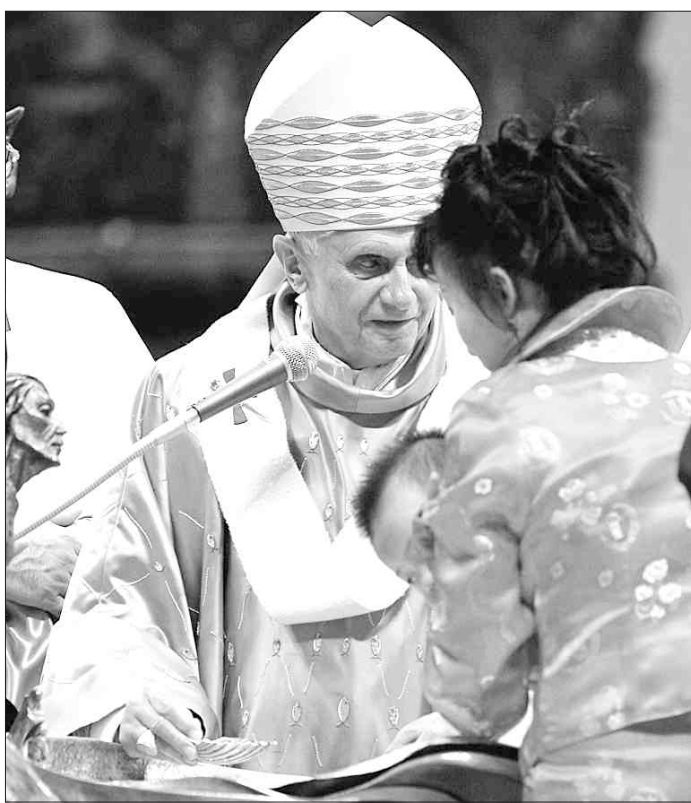
먼저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8일(현지시간)부터 일본과 한국, 중국을 잇따라 방문한다. 힐 차관보의 3국 방문은 북한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는 BDA송금 문제의 최종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BDA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3국 협의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힐 차관보는 마지막 행선지인 베이징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장과 만나 양자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김 부장이 베이징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경우 BDA 문제를 최종 매듭짓는 한편 6자회담의 조기 재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와 김 부장이 회동할 경우 BDA문제 외에도 북미 관계정상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협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BDA 해빙 마련 등이 순조롭게 전개될 경우 '60일 시한'인 오는 14일 전에 6자회담을 개최, 초기조치 이행 절차를 협의한 뒤 곧바로 핵시설 폐쇄조치를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부활절! 어린이에 세례 주는 교황



교황 베네딕도 16세(79)가 7일 밤(현지시간) 바티칸시티 성(聖)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부활절 전야 미사에서 중국 출신 어린이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FTA 타결로 비자면제 탄력받나

"Free trade, Free travel"(자유무역, 자유여행)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최근 접촉한 미 의회 관계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 같은 '모토'를 거론했다고 8일 소개했다.

한·미가 FTA를 통해 양국간 무역 장벽을 낮춘 만큼 여행장벽도 낮춰지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3개월(90일)짜리 미국 방문비자를 면제하는 VWP에 가입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현재 한국 외에도 불가리아·사이프러스·체코·에스토니아·그리스·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몰타·폴란드·루마니아·슬로바키아 등이 VWP 가입을 추진 중이다. 정부 당국에 이들 국가 중 한국이 VWP가입 조건에 가장 가까이 와 있다고 자평하

美 '자유무역자유여행' 언급

내년 상반기 VWP 가입 목표

고 있다. 한미 FTA협상이 타결됐지만 FTA와 VWP가입은 기술적으로는 무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적·기술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나라들 중에서 미 행정부가 VWP가입국을 최종 결정할 때는 FTA를 통해 미국시장과 더욱 가까워지게 된 한국을 최우선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당국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국인 백두산 호텔업자 "영업 방해 시달려"

영사관에 신변보호 요청

중국 지린(吉林)성 정부의 백두산 산락 숙박시설들에 대한 철거 방침과 관련, 이에 불응했던 일부 호텔들이 교묘한 영업방해로 시달림을 받아왔다고 호소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호텔 업자들은 '창바이산(長白山)보호개발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 산하 관리회사에서 작년 5월1일부터 실시한 백두산 산문(山門) 내 차량통행 제한조치가 바로 호텔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장백산관광관광호텔을 운영하

는 박범용(53) 사장은 산문을 통과하려 직원들이 입장권 구입을 요구하자 이에 항의를 했다가 오히려 '이곳이 대한민국의 문(門)이냐'며 판판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 사건은 박 씨가 지난 6일 주산양 한국총영사관에 신변보호 요청공문을 보내고 중국 상무부에 도이 같은 처사에 항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주택 전기무료사용/전기로 누진세 해방/월 전기요금 4만원 이상 납부 주택소유자들에게 희소식!!

태양광 주택설비 소요자금 정부에서 60% 무상지원!!

태양광 주택 설비 무상지원금 신청접수

태양광 신규 보급 국가지원정책사업 무요금, 무공해, 무한정, 무소음, 무제어

1 정부 지원 태양광 시스템 신청접수

정부에서는 환경친화적 무한청정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주택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보급을 확대(선진국수준인 5%이상)를 위해 2007년 태양광주택보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선정한 전문기업을 통해 신청접수하고 있습니다.

2 태양광 자가 발전시스템 무료 전기 사용

태양광 발전기만 햇빛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도 간편하게 설치하여 필요에 맞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시스템입니다. 태양광 발전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전에 전기를 공급하여 1kw당 716.4원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3 정부무상 지원금 60% 주택소유주택 대상모집

정부무상보조금 60%, 전국적인 태양광 시범주택을 모집합니다

- 날짜: 2007년 3월5일부터~(2007년 태양광발전 주택 정부지원예산내 운영으로 조기마감 예정)
• 대상: 일반주택, 공동주택, 공공건물, 교회...
1년미만 신규주택 우선
• 선정: 에너지관리공단 심사

접수 및 상담문의

062)251-1682

정부 무상보조 태양광주택 사업부 태양광 주택설치 전문기업

서두르십시오! [병원·학원] 최적지!

특급입지!! 대단지 2,500여 세대 아파트 독점상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빠른 상권형성, 확실한 수요층, 안정적인 수익성. 이젠 당시는 실 새 없이 밀려오는 고객과 성공사업의 기쁨만 생각하십시오.



삼익아파트 앞 동림동 다이빌딩 상가 임대!

따르는 신개발지역의 중심! 최고의 고객층이 형성된 황금입지를 잡았다!

대단지 아파트 단지 진출입에 위치한 최대상권! 동림주공, 삼익, 실라 등 반경 1km 이내에 10,000여세대의 아파트가 밀집

분양문의 062)531-3500 다이주택지주

Table with 2 columns: 다이빌딩 신속현황 and 임대조건. It lists details about the building's completion status and rental terms.